

여수바다 26.4도...전남 '고수온 관심 단계'

적조·아열대성 해파리 출현 예고...수산물 피해 우려도 도, 예찰선박 늘리고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태세 강화

전남지역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수산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조·아열대성 해파리 출현 등도 예고되면서 어민들 속도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장마 소멸 후 남해·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9일 전국에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섭씨 28

도에 도달하면 내려지고 주의보 7-10일 이후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해수부는 고수온 특보제를 운용하면서 지난해부터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의보 전 '관심 단계'를 신설했다.

여수 바닷물 온도도 26.4도까지 올랐고 완도·고흥 일대 해상은 22.7를 기록하면서 '고수온 관심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전남도는 애초 지난해 중순이면 고수온 관심 단계, 하순에 고수온 주의보(수온 28도 도달)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는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폭염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양식어류 피해가 없도록 상황반을 편성,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전환했다.

고수온이 계속되면 양식 어류의 경우 수온소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패류에서는 먹이활동과 성장도가 낮아지고 질병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 설치된 육상수조식 양식장만 1294곳에 이르고 해상가두리(102만 칸), 축제식 양식장도 320곳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최근 10년 간 2차례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 47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액화산소 공급기(100대), 산소발생기(80대), 차광막(2000롤), 액화산소(1000kg) 등 장비와 고수온 대응 사업비 17억원을 확보, 지자체에 지원하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고수온 현상 등을 감안하면 적조가 출현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예찰선박을 기존 6척에서 12척으로 늘리고 명예감시원 213명을 위촉하는 등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23일 여수 해역에 최초 출현, 고흥 해역에 걸쳐 8월 20일까지 지속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3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거리에서 구청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열기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北 연이은 도발에 靑 신속·단호 대응

당정청, 대화 최우선 원칙 유지...한미 당국 소통 중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어제 만인 31일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단호한 대응' 기류가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여전히 '대화 동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데 고민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북한 이날 오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오전 5시6분)가 이뤄진 지 약 5시간만인 오전 11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여당과 정부에서도 나란히 '단호한 대응'에 무게를 실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 방해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역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김영환 정보본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위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미사일 발사는 美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

美 언론 일제히 신속 보도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한국시간 31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뤄진 두 번째 발사라는 점에 주목하며 일제히 관련 소식을 신속 보도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노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평양의 두 번째 무기 시험"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은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에 대한 압력을 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잇단 미사일 시험의 배경으로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로 무기 시험을 한 것"이라면서 "북

한의 무기 시험 재개는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이 중단된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무기 시험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 방송은 북한 관리들이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에 실무급 대화가 곧 시작될 수 있다고 시사한 직후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언급을 전했다.

CNN은 또 미사일 발사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일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과 포क्स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이날(미 동부시간 30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광주시·전남도, 폭염대응 총력

온열질환자 꾸준히 증가...취약계층·시설 집중관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온열질환자 숫자와 축산물·어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최소화해나선다.

3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역 폭염 발생 및 온열질환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각 8일과 4일이었지만, 2018년에는 43일과 30일로 큰 폭 증가했다. 8월 한달 간만을 비교했을 때 2014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폭염이 21일, 열대야가 14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건강관리지원반 등 폭염 대응 전담반을 3개 반으로 구성해 분야별 폭염 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체육관과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해 7445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쉼터 이용 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에는 냉방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온열질환자 발생 또한 2014년 19명에서 지난해는 118명으로 10배 가량이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1285곳에서 1500곳으로 늘리고 도심에 우산형 그늘막 쉼터 163곳을 설치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살수차를 집중해서 운행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계층 2500여명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와 폭염 구급대도 운영한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설·산업 사업장의 작업자를 위해 일정 시간 작업을 중지하는 휴식 시간제를 도입한다.

35도 이상 무더위가 3일 이상 지속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태풍, 강풍, 호우에 대비해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복구

대책을 수립한다.

전남도도 5월에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의 여름 폭염 일수는 50일, 온열질환자는 사망 4명을 포함해 322명 발생, 가축은 579농가 97만마리(26억원) 폐사, 양식 어업 553어가 5410만마(471억원) 피해가 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건강관리지원반 등 폭염 대응 전담반을 3개 반으로 구성해 분야별 폭염 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체육관과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해 7445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쉼터 이용 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에는 냉방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설·산업 사업장의 작업자를 위해 일정 시간 작업을 중지하는 휴식 시간제를 도입한다.

35도 이상 무더위가 3일 이상 지속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태풍, 강풍, 호우에 대비해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복구

대책을 수립한다.

전남도도 5월에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의 여름 폭염 일수는 50일, 온열질환자는 사망 4명을 포함해 322명 발생, 가축은 579농가 97만마리(26억원) 폐사, 양식 어업 553어가 5410만마(471억원) 피해가 났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설·산업 사업장의 작업자를 위해 일정 시간 작업을 중지하는 휴식 시간제를 도입한다.

35도 이상 무더위가 3일 이상 지속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태풍, 강풍, 호우에 대비해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복구

대책을 수립한다.

전남도도 5월에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의 여름 폭염 일수는 50일, 온열질환자는 사망 4명을 포함해 322명 발생, 가축은 579농가 97만마리(26억원) 폐사, 양식 어업 553어가 5410만마(471억원) 피해가 났다.

투자자 모심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장성토지매매!!

- 4층, 30평 Apt 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 면 적 : 3,646㎡ (1,104평)
-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완도군 천선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적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대지 23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교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철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서구 차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금실입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조용한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 완산동 대구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입자·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안동 버스도막 709㎡ 건평 810㎡ 사옥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막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49평은 공실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땅 4413㎡ 축합 2억4천 투자에 좋은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점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신안 암태면 천사대교에서 15분 53397㎡ 중 계획관리지역 70%선 다용도 개발 5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림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혁신면 영산강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97)	광주교육대학교(207)
모집 /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 (금) 08: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 (토) 08:10 (특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 (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 (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단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생명): 010-3614-4160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wk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생명): 010-3614-4160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EDUCATION UNIVERSITY http://www.gneue.ac.kr/</p>